

2013 인천 & 아츠
명품 클래식 시리즈 IV



율리아 피셔 & 드레스덴 필하모닉
DIE DRESDNER PHILHARMONIE



2013. **10.29**(TUE) 8PM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DRESDNER PHILHARMONIE

Michael Sanderling Principal Conductor
Markus Poschner First Guest Conductor
Kurt Masur Honorary Conductor
Anselm Rose General Manager
Martin Bülow Director of Administration

First Violin

Ralf-Carsten Brömsel *
Heike Janicke *
Dalia Schmalenberg
Anna Fritsch
Julia Suslov-Wegelin
Heide Schwarzbach
Christoph Lindemann
Marcus Gottwald
Ute Kelemen
Antje Bräuning
Johannes Groth
Annegret Teichmann
Thomas Otto
Eunyoung Lee
Denise Nittel
Fanny Fröde **

Second Violin

Markus Gundermann *
Markus Hoba *
Günther Naumann
Reinhard Lohmann
Viola Marzin
Steffen Gaitzsch
Heiko Seifert
Andreas Hoene
Andrea Dittrich
Constanze Sandmann
Jörn Hettfleisch
Angelika Feckl
Katrin Sander
Maria Brunner **

Viola

Christina Biwank *
Hanno Felthaus *
Beate Müller
Steffen Seifert
Steffen Neumann
Heiko Mürbe
Hans-Burkart Henschke

Andreas Kuhlmann
Tilman Baubkus
Irena Dietze
Friederike Flemming
Sophia Gulde **

Violoncello

Matthias Bräutigam *
Ulf Prella *
Victor Meister
Petra Willmann
Thomas Bäs
Rainer Promnitz
Karl Bernhard von Stumpff
Daniel Thiele
Bruno Borralhinho
Hans-Ludwig Raatz

Bass

Benedikt Hübner *
Soo Hyun Ahn * **
Tobias Glöckler
Olaf Kindel
Thilo Ermold
Donatus Bergemann
Matthias Bohrig
Ilie Cozmatchi

Flute

Karin Hofmann *
Christian Sprenger * **
Claudia Rose
Tünde Molnár-Grepling **
Oboe
Johannes Pfeiffer *
Undine Röhner-Stolle *
Guido Titze
Isabel Kern
Clarinet
Fabian Dirr *
Felix Löffler * **
Henry Philipp
Klaus Jopp

Bassoon

Daniel Bäs *
Philipp Zeller *
Robert-Christian Schuster
Michael Lang

Horn

Michael Schneider *
Hanno Westphal *
Torsten Gottschalk
Johannes Max
Dietrich Schlät
Carsten Gießmann

Trumpet

Andreas Jainz *
Csaba Kelemen
Björn Kadenbach

Trombone

Matthias Franz *
Stefan Langbein *
Peter Conrad
Dietmar Pester

Tuba

Jens-Peter Erbe **

Harp

Marlene Angerer **

Timpani

Oliver Mills
Harald Persicke **

Percussion

Gido Maier
Alexej Bröse
Philipp Kohnke **

* Principal

** Substitutes

Executive Director, Martin Bülow
Consultant Music Director, Alexandra MacDonald
Orchestra Operations, Almut Placke

Orchestra Staff

Matthias Albert, Gerd Krems,
Jens Eichler, Matthias Richter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VIOLIN JULIA FISCHER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 과 '사랑과 죽음'

11"

Richard Wagner

Opera<Tristan and Isolde> Prelude and Liebestod

안토닌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53

32"

Antonin Dvorak

Violin Concerto in a minor, Op.53

- I. 빠르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 II. 느리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 III. 빠르고 경쾌하게

- I. Allegro ma non troppo - Quasi moderato
- II. Adagio ma non troppo
- III. Finale

INTERMISSION

요하네스 브람스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번호 98

40"

Johannes Brahms

Symphony No.4 e minor, Op.98

- I. 빠르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 II. 보통 빠르게
- III. 빠르고 경쾌하게
- IV. 빠르고 힘차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 I. Allegro non troppo
- II. Andante moderato
- III. Allegro giocoso
- IV.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율리아 피셔 & 드레스덴 필하모닉 | 인천 |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바이올린 율리아 피셔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닉

Die Dresdner Philharmonie | Incheon |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Violin Julia Fischer
 Orchestra Dresdner Philharmonie

DIE DRESDNER PHILHARMONIE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VIOLIN JULIA FISCHER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Richard Wagner : Prelude and Liebestod from Tristan und Isolde

관능과 환락의 이야기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바그너의 취리히 망명 시절의 걸작이다. 이 망명시절이란 것은, 1849년에 일어난 드레스덴 혁명사건에 그가 가담했기 때문에 무려 9년 동안에 걸쳐 취리히에 피신하고 있던 시절을 말한다. 당시 그는 아내 민나와 사이가 벌어져서 심신이 다 지쳐 있었다. 그러나 취리히의 호상 베젠동크(Wesendonk) 부처의 원조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부자유도 없이 문필과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 곡의 재료는 13세기의 독일 시인 시트라스부르크가 쓴 서사시 『트리스탄과 이졸데』, 노발리스의 『밤의 찬가』 등에서 취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사가 그 자신의 손에 의해 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것은 순전히 바그너의 창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1859년에 총보를 완성, 1865년 6월 10일 뮌헨에서 초연되었다.

이 작품에서 바그너는 첫째로 라이트모티프를 철저히 사용했다. 이것은 『트리스탄』에서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어떤 작품에서보다 철저히 추구했다.

둘째로 『무한선율』의 사용이다. 마치 고치에서 실이 끊이지 않고 풀려나듯이, 선율이 어떤 단위를 이루지 않고 계속 이어져나가는 수법, 이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셋째로 반음계와 엔하르모닉(enharmonic)이 빈번히 사용되는데, 이것이 무한선율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바그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무한한 동경, 사랑의 법열과 그 관능성 등을 표현하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트리스탄』으로 하여금 최고의 관능 음악이라는 지칭을 받게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곡은 제1막의 전주곡과 제3막 제3장에 나타나는 노래 『사랑의 죽음』을 연결하는 것이다. 『사랑의 죽음』 부분은 나중에 바그너 자신이 관현악용으로 편곡한 것이다. 전주곡은 동경을 담은 사랑의 기쁨과 관능미를 신비적 분위기 속에서 노래한 것이다.

이에 뒤따라 연주되는 『사랑의 죽음』은 『트리스탄의 시체 위에 쓰러지는 이졸데의 죽음, 그것은 불타는 사모의 지고한 실현이다. 경계도 없고 이별도 없는 무종무변의 나라에서의 결합이다』라고 한 바그너의 말이 그대로 음악으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는 영원한 사랑을 믿으면서 죽어가는 이졸데의 정갈하고 평화로운 감정이 담겨 있다.

드보르작 바이올린협주곡 A단조, Op. 53

Antonin Dvorak : Violin Concerto in A minor, Op. 53 (B.108)

집시 음악에서도 유용한 악기인 바이올린은 체코 음악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악기였다. 체코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음악은 흐느끼면서도 고양하는 기쁨이 있으며, 여인의 수줍은 미소를 머금다가도 하늘 높이 솟구치는 기개가 있다. 더구나 유능한 비올라 주자였던 드보르작은 현악기를 적시적소에 배치하곤 했다. 이러한 면은 그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첼로 협주곡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오히려 베토벤, 브람스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속음악적인 요소가 곳곳에 녹아 들어 가장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음악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 형식미에 있어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관현악법을 구사하고 있다.

드보르작은 그의 현악 4중주와 6중주를 연주해 주었던 존경하는 선배 요아힘에게 헌정할 목적으로 바이올린 협주곡을 썼다. 1880년 헌사와 함께 악보를 보냈으나 요아힘은 이 곡을 초연하지 않았다. 결국 1883년 프라하에서 체코 바이올리니스트 프란티šek 온드리체크에 의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1악장은 웅장한 투티로 문을 연다. 4마디 후에 곧바로 독주 바이올린이 강력한 더블 스톱핑을 동반하며 드라이브를 건다. 무반주로 높은 E음까지 상승하며 올라가는 고음은 아찔할 정도다. 마치 브루흐의 협주곡을 보는 듯 화려하다. 이 주제 하나가 하위테마와 어울려 기나긴 여정을 이끌어간다. 종횡무진 누비는 솔로 바이올린과 대위법적으로 진행되는 관현악반주는 참으로 드보르작 적이다. 신비롭기까지 하다. 전개부의 새로운 선율은 대단히 부드럽다. 재현부에서 오케스트라가 당당하게 주제를 연주하면 6마디의 짧은 카덴차가 있고 '아타카'로 2악장으로 이어진다.

아! 가장 예쁜 멜로디가 2악장에 흐른다. 아다지오의 2악장은 시작부터 잔물결로 출렁인다. 목관악기의 뒷받침이 그 느낌을 배가시킨다. '동카'가 역시 비켜갈 수 없다. 집시풍의 정열적인 두 번째 주제가 독주 바이올린에 얹혀진다. 그리고 다시 템포는 느려져 중간부는 갈무리된다. 트럼펫의 독특한 리듬으로 3부에 들어서면 오보와 클라리넷의 움직임도 다채롭다. 1악장과 달리 바이올린은 튀지 않고 어우러진다. 3악장은 완벽한 '동카'다. 푸리안트 춤을 기본으로 하고 빠르고 느린 부분을 론도 형식으로 펼친다. 2주제는 그래서 부드럽기가 하늘과도 같다. 현악기 군의 반주는 마치 민속 악기 두디와 같은 효과로 극대화된다. 이어지는 '동카'의 애수에 찬 3주제는 눈물을 속으로 머금는다. 하지만 역시 빛나는 피날레는 한바탕 춤판으로 마무리된다. 1주제의 변화무쌍함은 3악장의 성격을 결정짓는 열쇠와도 같다. 바이올리니스트는 비르투오적인 기교뿐 아니라, '동카'라는 체코 음악의 에센스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

CONDUCTOR MICHAEL SANDERLING
VIOLIN JULIA FISCHER

브람스 교향곡 4번 e단조 작품 98

Johannes Brahms :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북독일 함부르크 태생의 브람스가 남긴 4곡의 교향곡은 이 장르에서 베토벤 등과 더불어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데, 적은 수라고도 할 수 있는 4곡의 교향곡은 모두 고전주의에 입각하여 작곡되었으며, 특이하게도 순 음악적인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브람스가 낭만주의의 전성기에 태어나 낭만주의 후기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임에도 자신의 원류를 고전주의 시대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표제음악을 배척하고 절대음악을 추구했던 이유 역시 이러한 고집스런 집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람스의 교향곡은 같은 독일의 작곡가로서 동경해 마지않았던 베토벤과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이 종약장을 밟고 활기차게 마무리한 반면 브람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3번 교향곡은 체념한 듯 조용히 끝내기도 한다. 또한 베토벤은 호방한 남독일적인 기질을 음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한 반면 북부 독일인인 브람스는 분노나 환희의 표현이 훨씬 내성적인 정도로 구름 덮인 두툼한 울림을 진하게 표출하여 북국의 어둠을 심도 있게 나타내고 있다. 브람스의 교향곡은 4곡이 모두 4악장을 취하고 있으며 2악장이 공통적으로 느린 것처럼 4곡의 배열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브람스는 2번 교향곡을 작곡한 6년 후인 1883년(50세) 여름부터 가을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3번 교향곡을 완성하여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의 신중한 작곡 스타일에 비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작곡된 셈인데 4번 역시 브람스답지 않게 이례적으로 짧은 시기인 1년에 걸쳐 작곡되었다. 즉, 1884년 여름 오스트리아의 뮌츠슈라흐(Muerzzuschlag)에서 휴양하던 시기에 4번 교향곡의 작곡에 착수하여 1,2악장을 썼으며 1885년 여름 다시 뮌츠슈라흐를 방문하여 나머지 두 악장을 완성하였다.

이 위대한 4번 교향곡도 비록 초연 전에는 한슬릭(Eduard Hanslick)이나 헤어초겐베르크(Elisabeth von Herzogenberg) 등 지지자들에게조차 큰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1885년 10월 25일 마이닝겐(Meiningen) 궁정 극장에서 개최되었던 궁정 오케스트라의 제3회 예악연주회에서 브람스 자신의 지휘로 초연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3악장은 대단한 반응을 얻어내었다.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 이후 유럽의 각지에서 11회에 걸쳐 초연되었다. 대지휘자 한스 폰 뷔로우(Hans von Bülow)의 노력과 후원 역시 큰 도움을 주었는데 4번은 브람스의 생전에 자주 연주되었으며 대중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다.

4번 교향곡은 전반적으로 고전적인 정서는 물론 작곡 형태 역시 고풍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데 바로크와 그 이전 시대의 음악적 영향이 잘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대위법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낭만주의 시대의 관현악곡으로는 편성이 결코 큰 편이 아니라는 점, 2악장에서는 고대 프리지아 선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약장에서 장엄한 파사칼리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이 4번의 교향곡연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4번은 3번에 이어 작곡되었음에도 전혀 다른 스타일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세 곡의 교향곡과 비교해 봐도 그러하다. 즉, 1번 교향곡에서 나타나는 투쟁을 통한 '암흑에서 광명으로'의 승리, 2번의 목가적인 밝은 행복과 기쁨, 3번의 남성적인 웅대함과 장중함이 4번에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4번 교향곡은 앞의 3곡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깊이 있는 우수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50세를 넘긴 브람스가 인생에 대한 달관(達觀)과 반추(反芻)를 바탕으로 곡을 작곡하였기 때문으로 여기에는 열정보다는 쓸쓸한 고독과 적막감, 싱싱한 환희보다는 원숙미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렇듯 베토벤적인 고뇌와 동경, 열정과는 확연히 다른 브람스적인 체념과 공허함이 청자들에게 또 다른 공감과 위안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위안을 끌어내고 있다고 해도 지난친 말은 아닐 듯하다.

제1악장 Allegro non troppo e단조의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 서주부 없이 제1주제는 현에 의하여 단편적 선율의 연쇄로 제기되는데 이 주제의 애절함은 깊은 호소력을 발휘하며 제2주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드럽고 아름답다. 각 주제는 여러 가지로 전개되는데 쓸쓸함과 체념이 지배적이며 재현부의 마지막 코다는 마치 이러한 분위기를 떨쳐버리려는 것처럼 1주제의 처음을 베이스로 힘차게 시작하여 강렬한 팀파니와 오케스트라의 총주로 끝을 맺는다.

제2악장 Andante moderato 간략한 소나타 형식, E 장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브람스는 이를 고통스럽고 다소 어두운 악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데 옛 프리지아 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악장의 소박하면서도 차분한 아름다움은 매우 서정적이다.

제3악장 Allegro giocoso C장조의 밝은 조성으로 성격적으로는 스케르초 악장, 론도 형식에 가깝고 마치 1,2악장의 쓸쓸함에서 벗어나려는 듯 트라이앵글, 피콜로, 콘트라파곳 등 다양한 악기들이 새롭게 첨가되어 풍부하면서도 즐거운 음향을 만들어내는데 초연 당시에도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악장으로 역동적이며 강렬한 느낌을 전달한다. 일반적인 스케르초처럼 3박자가 아닌 2박자라는 것 역시 하나의 특징.

제4악장 Allegro energico e passinato e단조, 과감하게도 옛 파사칼리아 형태를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다. 단순하기까지 한 8마디의 음계적 악구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 자체는 장엄하긴 하나 맛깔스러움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브람스는 파사칼리아 형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이 주제를 무려 31회 (코다를 포함한다면 32회)나 갖가지 형태로 변주시킨 바, 복합적인 대위법적 구조를 포함한 기교의 훌륭함, 악상의 풍성함은 경이로울 따름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단지 변주만 계속하는 것을 벗어나 전체를 소나타 형식과 같이 큰 유기체로 구성해 놓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종악장은 실로 불멸의 곡이라 할 만하다.

DIE DRESDNER PHILHARMONIE

지휘
CONDUCTOR



미하엘 잔데를링

MICHAEL SANDERLING

1967년 동베를린 태생의 독일 지휘자 겸 첼리스트, 명문 음악가 출신으로 아버지는 쿠르트 잔데를링, 이복 만형 토마스와 동생 슈테판도 지휘자이다.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첼로를 공부하고 1987년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요요 마와 베른하르트 그린하우스 윌리엄 플리스를 사사했다. 또한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와 ARD 콩쿠르에 입상했다. 불과 20세의 나이로 쿠르트 마주어에게 인정받아 1988~92년까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를 맡았다. 1994~1996년까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객원 첼리스트로 활동했다. 솔로 첼로주자로선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빈 심포니,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LA 필과 협연했다. 실내악 주자로 율리아 피셔, 다니엘 뮐러 쇼트와 자주 호흡을 함께 했으며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으로도 활동했다. 첼리스트로선 슬레스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 루체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출연했고 베를린산 첼로 마티아스 그레신을 썼다.

1994~1998년까지 베를린에서, 2000~2004년까지 베른에서 첼로 교수직을 수행했으며 이후에는 프랑크푸르트 고등음악학교에서 첼로 교수로 임명되었다.

지휘자 데뷔는 2001년 11월 베를린 필하모닉홀에서 베를린 실내 관현악단을 지휘하면서 데뷔했고 2003년부터 유스 오케스트라인 독일 현악 필하모닉(Deutsche Streicher philharmonie), 2004년부터 베를린 실내 관현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취임했다. 2006~10년 포츠담 실내 아카데미 수석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취리히 톤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네덜란드 필하모닉,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MDR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노버 북독일 방송 필하모닉, 자르브뤼켄 방송 교향악단,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에 자주 초청되었다.

이 가운데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와의 함께한 쾰른 오페라 프로코피예프 '전쟁과 평화' (2011) 지휘는 그의 명성에 날개를 달았다. SONY 레이블에서 쇼스타코비치 작품을 녹음했으며 젊은 음악가의 지도,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드레스덴 필과의 관계는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7, 90, 94년에 첼로 객원 솔리스트를 역임했고 2004년에 처음 지휘를 맡았다. 그리고 11/12 시즌 수석 지휘자로 취임했다. 2013/2014 시즌에는 뮌헨 필, 요미우리 일본 교향악단, 쾰른 방송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스케줄을 밟고 있다.

바이올린
VIOLIN

21세기 새로운 현의 여제 율리아 피셔는 1983년 독일 뮌헨 태생이다. 어머니가 피아노에 능했고 아버지는 수학자였다. 4살 무렵에 바이올린 레슨을 먼저 받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엔 피아노 레슨도 시작이 됐다. 줄리아는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고 그래서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지만 오빠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악기를 택하면 멋진 가족 연주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의견을 따라 바이올린 배우기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바이올린 수업은 아우구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원과 뮌헨 음악 아카데미에서 받았다. 이 무렵 그녀는 글렌 굴드, 키신, 벤게로프 같은 천재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12살 때인 1995년,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과 비호 독주곡 연주 특별상을 받았고, 이듬해엔 제8회 유러비전 청소년 콩쿠르에서 역시 우승했으며, 1997년엔 유럽 산업기구가 주는 <Prix d'Espoir, 희망 상>을 받았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때는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 생가에서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행운도 차지했다. 지금까지 모두 8개의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 이후, 율리아의 연주 무대는 전세계로 전개되어 독일, 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일본,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연주하고 있으며 로린 마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야코프 크라이즈버그, 유리 테미르카노프, 네빌 매리너, 데이비드 진만, 즈데넥 마칼, 준 메르클, 루벤 가자리안, 마렉 야노프스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마이클 틸슨 토마스 등과 협연했다.

2004년 PentaTone 레이블에서 러시아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수록한 첫 음반(지휘 : 아콕 크라이즈베르그,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이 발표되었다. 이 음반은 독일에서 베스트 셀링 디스크 5위에 올랐고 그라모폰은 "편집장 추천, Editor's Choice"에 선정했다. 잇달아서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 모차르트와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을 발표했다. 2008년 1월, 줄리아는 피아니스트로 데뷔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웅에 도이치 필하모닉과 그리그의 협주곡을 연주한 것이다. 잇달아서 이 오케스트라와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3번도 연주했다. 율리아의 레퍼토리는 40여곡의 오케스트라 작품과 60여곡의 실내악 작품 등 매우 폭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올린은 1716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일본 음악재단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 구입한 과다니니(1742년 제작)도 지니고 있다.



율리아 피셔

JULIA FISCHER

오케스트라
ORCHESTRA



진중함 통독 사운드, 명장의 승결과 그대로 숨 쉬는 명연의 보고

드레스덴 슈타츠히아텔레의 대명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명문 오케스트라, 2007년 드레스덴 상 십자가 합창단의 '대제 수난곡' 반주로 처음 한국을 찾았고 2008년 리마를 표투에 데 부르고스 & 피사 마 이스카와 한국 투어를 함께 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색채를 지닌 드레스덴 필의 향취도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운다.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 1872년에 창간된 드레스덴 필하모닉 관현악단은 1970년 11월 25일 첫 번째 콘서트를 치렀으며 드레스덴 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1979년부터 현재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연장의 이름을 따서 게레르베 공장 이라는 필하모스트로로 불리다가 1979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닉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동독 시절에는 문화 공간 Kulturplatz을 주 공연장으로 사용한다.

명문 오케스트라답게 수많은 거장들이 이 악단과 함께 하였다. 보잉스,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자크, R 슈트라우스 등이 자신의 곡을 지휘하였으며, 1934년부터는 피를 만 했던 카를 슈리히트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1945년 이후에는 쿠르트 마우어, 귄터 헤르비히, 헤르베르트 케겔, 미셸 플라송 같은 거장들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드레스덴의 전통을 알렸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베허린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마렉 야노프스키가 음악감독을 역임했다. 2004~5 시즌부터는 거장 리마를 표투에 데 부르고스가 상임지휘자로 활동했고 2011/12 시즌부터 마하엘 잔데를링이 비룡을 이어받았다. 오랜 동안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거장 쿠르트 마우어는 계관지휘자, Jurate Conductor로 칭송을 받고 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공연장으로 유명한 골투어발라스트문화공간에서 연 80회 이상의 연주회를 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시민의 자랑거리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독일 통일 이후에 새로운 콘서트홀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각계에서 밀려 들어왔다. 하지만 과거 야노프스키가 상임 지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2004년 새로운 홀의 건립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자신의 사임 이유라고 밝히고 나서자 건립 과정의 속도가 불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는 문화 공간 외에도 크로이츠 교회(Kreuzkirche)와 드레스덴 음악대학, Schloss Albrechtsberg 동등 연주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 단체로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협회 단과 드레스덴 필하모닉 협회 코어어가 있다.

역대 음악감독

- 14 1870~1885 헤르만 만스펠트 Hermann Mannafeldt
- 24 1885~1886 미카엘 짐머만 Michael Zimmermann
- 34 1886~1890 에리히 슈탈 Erich Stahl
- 44 1890~1903 아우구스트 트렌클러 August Trenkler
- 54 1903~1915 윌리 올센 Willy Olsen
- 64 1915~1923 에드윈 린드너 Edwin Lindner
- 74 1923~1924 조세프 프리츨 Joseph Gustav Mrazek
- 84 1924~1929 에두아르트 워라케 Eduard Morike
- 94 1929~1932 파울 셴플루그 Paul Schenflug
- 104 1932~1934 베르너 라트빅 Werner Ludwig
- 114 1934~1942 파울 반 켈펜 Paul van Kempen
- 124 1942~1944 칼 슈리히트 Carl Schuricht
- 134 1945~1946 게르하르트 바이겐후터 Gerhart Weenerhüter
- 144 1947~1964 헤인리히 뮌가르트 Heinz Bongartz
- 154 1964~1967 홀스트 모스티 Horst Forster
- 164 1967~1972 쿠르트 마우어 Kurt Masur
- 174 1972~1976 귄터 헤르비히 Günther Herbig
- 184 1977~1985 헤르베르트 케겔 Herbert Kegel
- 194 1990~1994 요르그 피터 바이글 Jörg-Peter Weigle
- 204 1994~2001 미셸 플라송 Michel Passon
- 214 2001~2004 마렉 야노프스키 Marek Janowski
- 224 2004~2011 라파엘 표투에 데 부르고스 Rafael Fruhbeck de Burgos
- 234 2011~ 현재 마하엘 잔데를링 Michael Sanderling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세계 최고의 실내합주단

지휘자_Arturo Toscanini

‘완벽’이란 두글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음악비평가 겸 작곡가_Virgil Thomson



MUSIC

이 무지치

신년 음악회

2014.1.19(일) 5:00PM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관람연령 : 8세 이상

예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주최 : 인천광역시 주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티켓 오픈 : 2013. 11. 13(수) 11:00 AM

※ 본 공연의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전에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